

# 광양만권 초미세먼지 배출량 큰 폭 감소

### 환경부, 사업장 18곳과 대기오염물질 감축 협약 체결 지난해 12월 조사 결과 1년 전 동기간 대비 279t 줄어

광양만권 일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 12월 광양만권 18개 업체에서 발생한 초미세먼지가 2018년 동기간 대비 279t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14일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전국 77개 기업 122개 사업장과 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위해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여기에는 광양만권 18곳의 사업장을 포

함해 광주 3곳·영암 1곳·장성 1곳·나주 1곳 등 총 25개 사업장이 동참했다.

환경청에 따르면 협약을 체결한 업체들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농도를 자체적으로 설정해 운영했다. 또 사업장 내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살수차량·살수 시설 운영, 친환경 연료사용 전환 등 그 밖에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조치를 취했다.

환경청은 감축조치 시행 결과 지난해

12월, 2018년 12월 대비 초미세먼지 36.3%(279t), 황산화물 43.6%(645.5t), 질소산화물 26%(708.5t)가 감축됐다고 설명했다.

측정결과는 각 사업장에 설치된 굴뚝자 동측정기(TMS) 측정결과와 초미세먼지 환산계수를 활용해 산출했다.

업체별 오염물질 감축 실천사항을 살펴보면 LG화학 화지공장은 보일러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을 줄이기 위해 약 47억 원을 투자, 보일러 5기를 가스 소모를 줄이는 저녹스 버너로 교체했다.

OCI 광양공장과 GS칼텍스는 약품사용량을 최적화하고 기체연료 사용비율을 높

여 황산화물과 초미세먼지 발생량을 감소시켰다.

이에 환경청은 14일 여수시 LG화학 화지공장 연수원에서 미세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을 맺은 광양만권 입주기업 18곳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사업장별 협약 이행 사항을 확인하고 오염물질 저감방안과 그동안의 성과를 공유했다.

김상훈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대기오염 배출저감을 위한 노력은 연중 계속되어야 하며, 특히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만큼은 특단의 노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호주 산불은 인류 향한 경고”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뱀보카 지역의 하늘이 산불에서 발생한 연기의 영향으로 붉은 빛을 띠고 있다. /연합뉴스

### 환경단체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 위기 대응 촉구 집회

시민단체가 석 달 넘게 계속되는 호주 산불 희생자를 추모하고, 정부에 기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열었다.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연합 등 300여개 단체로 구성된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지난 13일 오후 주한 호주대사관이 입주한 서울 광화문 교보빌딩 앞에서 집회를 열고 “호주 산불은 인류에게 보내는 경고”라며 기후 위기 대응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호주 산불로 이미 대한민국 영토보다 더 큰 면적이 불에 타 지금까지 최소 299명이 죽고 코알라, 캥거루 등 10억 마리 넘는 동물이 생명을 잃었다”며 “매우 무겁고 참담한 마음”이라며 애도를 표했다.

이어 “과학자와 기후학자는 재앙적인

산불이 일어난 원인으로 탄소배출 증가로 인한 기후변화를 꼽는다”라며 “기후변화로 강수량이 줄어든 데다 고온 현상에 바람까지 겹치면서 대규모 산불이 났다”고 지적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지난해 미국 캘리포니아와 시베리아의 산불, 푸에르토리코를 집어삼켰던 태풍도 모두 온도 상승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면서 “호주 산불에서 발생한 미세먼지 등으로 기후 변화가 더 촉진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이들은 호주 정부에 산불과 기후 변화의 연관성을 인정하고 근본적인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한편 우리 정부에도 적극적인 기후 위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들은 “과감한 기후 위기 대응이야말로 또 다른 재난을 막는 길”이라며 온실가스 배출을 아예 없애는 ‘온실가스 배출 제로’ 목표를 수립하고, 석탄 채굴을 중단하는 등 과감한 대책을 만들고 실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연합뉴스

### 영산강·섬진강 환경지킴이 28일까지 40명 모집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영산강과 섬진강 환경지킴이를 모집한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14일 오후 영산강과 섬진강 수질 감시활동을 함께할 환경지킴이 40명을 채용한다고 밝혔다.

모집기간은 오는 28일까지이며,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워크넷 홈페이지와 우편·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영산강권역은 23명, 섬진강권역은 17명을 각각 채용한다.

정부의 소득보조형 직접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취업취약 계층을 우선적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선발된 환경지킴이는 주 5일, 일 8시간 근무하며 영산강·섬진강 환경오염행위 감시·계도, 하천변 정화활동, 지역주민 교육·홍보 등의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자세한 채용 계획은 영산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와 워크넷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점검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최근 광주시 남구의 한 의료폐기물소각시설을 찾아 소각시설 운영상황을 점검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 제공>

### 미국서 기온 2도 오르면 연 2천명 추가로 숨질 수도

기온이 섭씨 2도만 올라도 매년 미국에서 부상으로 인한 사망자가 약 2100명 늘어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영국 임페리얼칼리지 공중보건대학의 마지드 예자티 교수 연구팀이 1980~2017년 미국에서 부상으로 인한 사망자 수를 주(州)별로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냈다고 AFP통신이 최근 보도했다.

연구팀은 기온이 1.5도 상승할 때 약 1600명이, 2도 상승할 때 약 2100명이 미국에서 추가로 사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합뉴스

### 광주시 동구 ‘쓰레기 없는 깨끗하고 행복한 동구’ 선포

#### 쓰레기 배출 15% 감량 목표 3개 분야 19개 사업 추진

“쓰레기 없는 깨끗한 행복 동구를 만들겠습니다.”

광주시 동구가 최근 구청 6층 대회의실에서 ‘2020년 쓰레기 없는 동구 원년’을 선포했다.

14일 동구에 따르면 갈수록 심각해지는 환경문제를 민관이 힘을 모아 대응하고자 올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 생활쓰레기, 음식물, 자원재활용 등 쓰레기 배출 15%

감량을 목표로 3개 분야 19개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이에 앞서 동구는 지난해 8월에 걸쳐 주민토론회를 실시해 청소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제안과 창의적 아이디어를 수렴했다.

동구는 쾌적한 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생활폐기물 수거시스템 개선, 청소 특별관리지역 지정관리 및 불법투기지역 집중단속, 내 집, 내 상가 앞 하루 10분 청소하기 등을 펼친다.

자원순환해설사 등을 활용한 쓰레기 재활용을 제고에도 힘을 모은다. 자원순환해설사는 재활용가능 자원 1대 1수거체계

구축, 재활용 분리수거 교육마당 운영, 1회용품 사용 제로 추진, 음식물쓰레기 감량 사업 등을 실시한다.

또 재활용 동네마당 확대 설치, 인공지능 재활용품 자판기 설치, 자원순환 시범마을 조성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쓰레기 문제는 민·관이 힘을 모아 해결해야 할 과제”라면서 “앞으로도 주민들의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혁신적 청소행정을 펼쳐 쓰레기 없는 쾌적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 해양 오염 사고 늘었지만 기름 유출량 40% 줄었다

해양경찰청 지난해 사고 집계

해양경찰청은 지난해 전국 해역에서 발생한 오염물질 유출량이 2018년보다 약 40% 감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발생한 해양오염사고는 296건으로 2018년 288건보다 소폭 증가했지만, 기름 등 오염물질 유출량은 148㎏로 2018년 251㎏보다 103㎏가 줄었다.

해경청은 사고 선박 안에 실린 기름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다른 선박으로 옮기는 ‘적재유 이적 작업’ 등 예방 조치를 유출량이 감소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해양오염사고는 기름 이송작업 등을 하다가 부주의로 발생한 경우가 102

건(전체의 34%)으로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선박 통항량과 기름 물동량이 많은 부산 해역의 오염물질 유출량이 39.4㎏(60건)로 가장 많았다.

오염원별로는 어선에 의한 사고가 13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예인선 등 기타선, 유조선, 육상, 화물선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인택수 해경청 해양오염방제국장은 “선박의 종류·시기별 점검을 지속해서 실시하고 장기 계류 등 취약 선박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사고 발생 시 선박에 실린 기름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유출구를 막는 등 적극적인 예방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